


생애(生涯) 첫해의 애완동물 접촉이 유년기의 알러지 위험을 감소

대한수의

대한뉴팜 중앙연구소 / 박종명 소장
(parkjm@dhnp.co.kr)

- 연구 배경 : 유년기의 천식(喘息)은 알러지 감각(感作)과 강력하게 관련되어있다. 연구결과는 유아(乳兒)기의 동물에 대한 노출이 그 후의 알러지 감각(感作)을 감소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연구 목적 : 생애 첫해의 개와 고양이에 대한 접촉과 6~7세 때의 알러지 감각과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 시험설계, 환경 및 피시험자 :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외의 건강관리기구(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 회비를 지불하고 가입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기구)에 등록된 1987. 4. 15부터 1989년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건강하고 정상임신기간을 채운 유아(乳兒)들의 출생 집단에 대하여 평균 6.7세가 될 때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출생시 어린이 835명으로 연구를 시작하여 474명(57%)이 6~7세 때 까지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 조사연구 방법 : 6종의 대기알레르겐(대기중 알러지를 일으키는 물질) 즉 ① 집먼지진드기(Dermatophagoides farinae, D pteronyssinus), ② 개 ③ 고양이 ④ short ragweed(Ambrosia artemisiifolia, 꽃가루가 알러지를 일으킴) ⑤ blue grass (Poa pratensis)에 대한 피부천자시험양성(skin prick test positivity)을 보일 경우 아토피로하고, 같은 6종의 알레르겐 또는 다른 종류에 대하여 알레르겐특이성면역글로불린(allergen-specific IgE) 시험 결과 양성을 보이는 것을 혈청아토피로 판정하였다.
- 결 과 : 6~7세 때 피부천자시험양성(아토피)을 보인 비율은 생애 첫해에 개나 고양이와 접촉이 없었던 어린이에서 33.6% 이었고, 한 마리의 개나 고양이와 접촉된 어린이에서는 34.3% 그리고 두 마리 이상의 개나 고양이와 접촉한 어린이에서는 15.4%이었다($P=.005$). 알레르겐

특이성면역글로불린(allergen-specific IgE) 시험결과 양성(혈청아토피) 비율은 개나 고양이와 접촉이 없었던 어린이에서 38.5% 이었고, 한 마리의 개나 고양이와 접촉된 어린이에서는 41.2% 그리고 두 마리 이상의 개나 고양이와 접촉한 어린이에서는 17.94%이었다(P=.003). 태출 혈청의 면역글로불린(IgE) 농도, 성별, 나이 많은 형제자매, 부모 흡연, 부모 천식(喘息), 두 살 때의 침실의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겐 수준 그리고 현재의 개나 고양이 소유 여부 등을 종합한바, 생애 첫해에 두 마리 또는 그 이상의 개나 고양이와 접촉은 아토피(adjusted odds ratio, 0.23; 95% confidence interval, 0.09-0.60)와 혈청아토피(adjusted odds ratio, 0.33; 95% confidence interval, 0.13-0.83)의 위험을 현저하게 낮추어 주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이 글은 미국의학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002년 8월 28일자(Vol. 288 No.8)에 발표된 Dennis R. Ownby(의사) 등의 “Exposure to Dogs and Cats in the First Year of Life and Risk of Allergic Sensitization at 6 to 7 Years of Age”의 요약부분을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JAMA Vol.288 No.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